

『無情』系譜攷

韓 承 玉*

- | | |
|-----------|----------|
| I. 序 論 | 2) 離 別 |
| II. 本 論 | 3) 再 會 |
| 《作品의 對比》 | 4) 再離別 |
| 1. 構成의 對比 | 5) 다시 만남 |
| 2. 內容의 對比 | III. 結 論 |
| 1) 만 남 | |

I. 序 論

小説 研究에 있어서 어느 한 小説의 系譜를 확정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면서도 어려운 일에 속한다. 文學 研究는 궁극적으로는 文學史에 연결되며,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를 通時的으로 연계하는 관점이 정당하게 설정될 때 文學 作品의 個別的 價値가 보다 선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無情」의 경우도 系譜를 확정짓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에 해당한다. 「無情」만큼 文學史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作品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無情」의 系譜나 영향 관계에 대한 研究는 매우 영성한 편이다. 있더라도 피상적인 고찰에 머문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자면, 톨스토이의 영향을 입었다든가¹⁾ 字句的으로 古代 小説에 힘입었다든가²⁾ 하는 추상적인 지적에 머문 정도이다. 구체적인 作品 對比를 통한 영향 관계의 세밀한 分析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다.

「無情」이 한국 현대 문학사에 주요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면, 그것은 전대소설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새로운 소설이 창조될 때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讀者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독자를 도외시한 채 절대적으로 작품 자체만을 혁신할 수는 없다. 소설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독자와 밀착되어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독자도 혁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독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성을 지니고 있거나, 知的으로도 매우 저급한 것이 보통이다. 이런 독자들에게 전혀 낯익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소설을 선보인다면,

* 文理科大學 國語國文科 助教授

1) 丘仁煥, 李光洙小説에 受容된 톨스토이, 李光洙小説研究, 서울: 三英社, 1983, pp. 275~300

2) 成賢慶, '無情'과 그 以前의 小説, 語文學 32號, 1975.

그들은 거부반응부터 나타낼 것이다.

작가가 새로운 소설을 시험하려 할 때 과거 소설적 관습이나 규약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쌓여진 소설적 관습이나 규약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면서 자기의 창작성을 살려야만 새로운 소설이 탄생 가능하게 된다.³⁾

春園 李光洙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春園은 소설을 자기의 本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다.⁴⁾ 思想을 전달하는 계몽의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했노라고 공언했던 作家였다.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리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독자가 가장 친근했던 小說의 慣習이나 規約은 어떤 것일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대적으로 그와 다른 異質的 要素도 추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無情」의 獨創性 여부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無情」을 면밀히 검토하고, 逆으로 과거 소설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이용하려 한다. 이리하여 「無情」의 系譜를 확인함은 물론, 당대 독자들의 문학적 기호까지도 파악하려는 것이 본래의 의도이다.

Ⅱ. 本 論

李光洙는 「無情」을 「每日申報」에 연재하기 이전에 이미 原稿를 完成한 것일까? 아니면 構想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청탁이 와서 이것을 토대로 부분 부분 조정해 가면서 연재한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아예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回分부터 새롭게 構想하여 쓴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無情」의 形成 過程이나 영향 관계를 알아 보려 할 때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改稿의 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작품의 形成 過程을 알 수 있는 동시에, 그 原形까지도 추정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春園은 「無情」의 제작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無情」을 쓰게 된 직접 동기는 《每日申報》社에 新年小說 하나를 쓰라, 그 제호를 電報하라는 전보를 받고 쓰다 말고 쓰다 말고 하던 原稿뭉텅이에서 英彩에 관한 원고를 내어서 동기 放學 동안에 不眠不休로 約七十回 分을 써 보낸데서 始作이다.⁵⁾

「無情」은 126회로 끝난다. 70회분이면 거의 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미 신문 연재 前에 기본 골격이 갖추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無情」은 「英彩」라는 舊稿를 改作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舊稿는 어떤 형

3) A.A. Mendilow, *Time and novel*, New York, Humanities Press, 1968, pp. 35~52.

4) 李光洙, 多難한 半生의 途程, 李光洙全集 8권, 서울, 又新社, 1979, p. 452.

5) 上同

태였을까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유감스럽게도 舊稿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한가지 편법이 있다면,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英彩」란 소설을 「無情」을 통해 推論하는 길이다. 「無情」에서 「英彩」의 原形을 추출하는 길은 영채를 중심으로 영채의 스토리를 再構成하는 方法이다.

「無情」을 영채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영채가 어렸던 시절, 영채의 아버지 박진사가 개화에 뜻이 있어 私財를 털어 학교를 개설 했는데, 그때 박진사의 친구 아들 형식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의탁할 곳이 없자, 박진사가 데려다 공부를 시킨다. 박진사는 형식이 영리하므로 영채의 장래 배필로 정한다. 이곳에서 영채와 형식은 어린 오누이처럼 다정하게 지낸다. 박진사가 私財를 터는 것도 한계가 있어 재산이 바닥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한 흥모라는 학생이 이웃마을에서 돈을 얻기 위해 강도살인을 하게 되고, 잡히게 되자, 박진사도 교사 및 공범 혐의로 연루되어 투옥된다. 이로 인해 학교는 해체되고 집안은 폐가가 된다. 영채는 외가에 의지하다가 구박이 심해 탈출하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평양으로 간다. 가는 도중 목썰사람을 만나 위기를 당하나 개의 報恩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무사히 평양에 와 아버지를 면회하나 그 비참함이 말이 아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봉양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妓籍에 몸을 팔게 된다. 그 돈으로 아버지를 봉양한다. 박진사가 이 소식을 듣고 가문이 망했다며 자결한다. 두 오빠도 따라 죽게 되고, 영채는 친애의 고아가 된다. 이후 오직 과거에 박진사가 배필로 정해 준 이형식만을 오로지 희망으로 삼아, 기생의 몸이면서도 정절을 지키며 만날 날을 고대한다. 막상 그리던 형식을 만나니 아직 독신이기는 하나, 경성학교 영어 교사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처지는 천한 기생이 되고로 결혼 희망이 희박해짐을 의식하게 되고, 마침 배화감 일당에게 정조마저 유린된다. 죽을 결심을 하고 평양행 기차를 탔는데 김병욱이란 은인을 만나 구원된다. 이후 김병욱과 함께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유학가는 기차간에서 또한 미국으로 유학차 떠나는 이형식과 김선형을 만나게 된다. 서로 애정 문제로 갈등하던 중 삼랑진에서 홍수를 만나 이를 계기로 구국을 위해 과거의 애정관계로 인한 舊怨을 없애고 오로지 구국사업에 일념한다.’

대강 위와 같은 줄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채를 중심으로 소설을 재구성한다면, 스토리 상에서는 선형과의 관계가 약화될 뿐, 다른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러한 영채의 이야기가 실제 「無情」에서는 어떻게 용해되어 있는가를 살펴, 그 의미를 추출해 보기로 한다.

「無情」은 주지하는 바대로, 이형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형식이 선형의 집에 가정교사하러 가는 장면이 발단이다. 현재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만 보아도 「無

情]이 이전의 소설보다 박진감(verisimilitude)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時間과 空間이 現實에 밀착되어 있다. 만일 「無情」이 영채로 부터 기술되었다면, 春園은 소설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데 매우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春園은 과거담을 삽입하는 형태로 영채를 끌어 들여, 時間 構成을 現在로 부터 출발하여 過去를 환기시키는 복합 구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春園은 이미 立體的 小說構成法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점이 영채의 이야기를 더욱 생기 있게 해 준 점이라 볼 수 있다.

「無情」에서 주인공이 형식인 것처럼 출발하지만 영채가 소설의 중추적 역할을 함은 소설을 조금만 정성들여 읽으면 쉽게 드러난다. 이점은 당대의 독자의 반응으로도 능히 짐작된다. 당대의 독자의 모든 관심은 형식이나 선형보다는 기구한 운명의 영채에게 쏠릴 수 밖에 없었으리라. 이점을 東仁은 매우 못마땅하게 지적하고 있으나⁶⁾ 독자의 입장에서 이형식이나 김선형보다도 영채가 더 낫았을 것이다. 또한 그 운명의 우여 곡절이 독자의 기호나 소설적 흥미에도 합당했을 것이다. 단연 독자를 사로잡을 만한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영채란 인물은 소설에서는 비록 과거의 윤리관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의 시련 과정은 당대의 시점에서 볼 때, 추상적인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인물의 한 전형이었을 것이다. 박진사도 유가의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만, 뜻한 바 있어 개화파가 된 사람으로, 私財를 털어 교육에 힘쓰던 사제로 보아 개화기에 있을 수 있었던 현실의 한 전형이었다고 보여진다. 春園이 재직했던 五山學校 校主 南岡 李承薰의 편모이거나, 어린 시절 그가 만났던 동학교도 중의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⁷⁾ 배제할 수 없다. 박진사의 묘사나 그의 행위를 서술하는 것을 보면 상상적인 처리를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이다. 아마도 春園이 실제로 대면했던 경험을 되살려 묘사하였기 때문이 아닐가도 생각된다. 그리고 이형식과 박영채가 어렸을 때 만난 것도 想像이라기 보다는 사실성이 농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春園이 그의 회고록에서 「無情」은 어린 시대의 동경의 一部分을 쓴 것⁸⁾ 이라고 한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부터이다. 이 지점까지는 寫實性이 나타나고 타작품을 모방하거나 차용한 흔적이 안 보이나, 이 이후 박진사가 투옥되고 나서 古代小說的인 인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영채는 박진사를 면회하고 난 후,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古代小說의 예가 제시되고 있다. 영채가 효행을 실천하려 한 순간 우리 古代小說에 있었던 孝行의 관습을 떠올리는 것이다.

옛날 책을 보면, 혹 어떤 처녀가 제 몸을 팔아서 죄에 빠진 부모를 구원하였다는데, 나도 그렇게나

6) 金東仁, 春園研究, 東仁全集 8권, 서울: 弘字出版社, 1968, pp. 497~499.

7) 崔元植, 李光洙와 東學, 冠嶽語文研究, 3輯, 서울大 國文科, 1978.

8) 李光洙, 前掲書 p. 452.

하였으면……

영채는 옛말을 생각하였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 몸을 팔아 그 돈으로 아버지의 죄를 속한 옛날 처녀의 말을 들을 제, 아직 열살이 넘지 못하였던 영채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그리하였으면 한 일이 있음을 생각하였다.⁹⁾

춘원은 이 지점에서 왜 古代小說을 일부러 끌어 들였을까? 그전까지 現代小說의 기법을 유감없이 전개해 왔는데, 이 지점에서 한계를 느낀 것일까?

筆者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싶다.

첫째가 그의 문학적 소양의 연원과의 관계이다. 그는 文學 生活의 씨 얻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내 外祖母 되는 이가 去年에 이야기책을 좋아하셔서, 그러나 눈이 어두워서 남을 보면 이야기 책을 읽어 달라는 習慣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刺戟이 되었을지 모르지요. 나도 五, 六歲에 한글을 깨쳐 外祖母께 이야기책을 보아 드리고 賞給으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덜걱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이런 이야기 책들을 外祖母님께 읽어드린 것이 記憶됩니다. ……(略)……

外祖母가 世上을 떠난 뒤에는 내 三從 누님 한 분이 내게는 文學教師였습니다. 그녀는 몸에 病이 있어서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針線하는 餘暇에는 이야기책을 읽었는데 그 影響으로 《월봉기》니, 《장선감의록》, 《사씨남정기》 등을 비롯하여, 인근에서 구할 수 있는 이야기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¹⁰⁾

春園은 11세 이전에 이미 古代小說을 토대로 이야기를 꾸며 三從들에게 보인일이 있다니¹¹⁾ 문학에 대한 조숙성을 알만도 하거니와, 어린 시절의 思考 形成에 古代小說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이 짐작된다 하겠다.

둘째가 독자에 대한 우월감과 과잉 친절이다. 春園은 누구 보다도 독자를 예민하게 인식하였던 작가였다. 하기에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독자의 반응까지도 미리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소설을 써나갔을 것이다. 하여 독자가 혹시나 자기의 의도로 부터 빛나가거나 앓을까, 혹은 새로운 소설에 소양이 없는 독자를 새로운 기법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여겨, 과거에 익숙하였던 古代小說을 인용하여 빛나가거나 포기하려는 소설에 대한 흥미를 되돌려 순탄하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은연 중에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세번째로 새로운 소설을 쓰고 싶은 충동과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春園은 적어도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古代小說과는 전혀 다른 소설을 쓸 수 있다고 자신했기에 이러한 借用이나 引用이 가능했을 것이다.

9) 『無情』, 李光洙全集 1권, 又新社 1979, p. 36.

10) 李光洙, 多難한 半生의 途程, 全集 8권, p. 445.

11) 上 同

그렇다면 당시의 독자가 이 순간에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古代小説은 과연 어떤 것일까가 문제가 되며 또한 작가는 어느 고대 소설을 염두에 두었을까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알아야 당대의 독자와 작가와의 상호 긴장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無情」의 原形이나, 아니면 적어도 강하게 영향을 준 과거 小説의 有無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引用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古代小説에 빈번히 발견되는 〈희생적 효행〉이다. 우리 古代小説에는 효행을 기린 소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심청전」이다. 심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파는데,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無情」에서는 영채가 妓籍에 몸을 팔 뿐이지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점에서 「심청전」과는 다르다. 같은 동기, 같은 孝行의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죽음의 선택이며, 하나는 妓生으로서의 신분의 강등이다. 그러니까 동기는 유사하지만 근본에 있어 패턴이 같은 이야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여주인공이 妓生이 되어 효행을 실천하는 이야기와 맥락이 닿아야 하는데, 우선 여주인공이 기생으로 전락하는 것 부터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無情」에서 영채처럼 양가집 처녀가 妓生이 되는 이야기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妓生 이야기라면 대표적인 것이 「춘향전」이다. 「춘향전」은 異本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잘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춘향의 신분은 양가집이라기 보다는 퇴기 월매의 소생으로, 비록 춘향이 기생은 아니더라도 그 신분이 떨어져서, 춘향이 아버지를 위해 妓籍에 몸을 판다는 스토리가 어느 판본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영채의 스토리와 유사성을 찾는 견지에서 「춘향전」은 일단 제외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양가의 유수가 기생으로 전락되는 예는 오히려 「柳綠傳」이나 「靑年悔心曲」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의 이야기기라는 점에서는 「無情」과 맥락이 닿을 수 있으나 영채의 孝行이나 기구한 운명의 우여곡절이란 면에서는 유사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과거 소설과 「無情」이 근사한 것을 찾으려면 妓生으로의 전락과 아버지에 대한 孝行을 둘 다 충족시키는 小説이라야 한다.

이로 볼 때 가장 근사한 것이 「彩鳳感別曲」이다. 「彩鳳感別曲」은 우선 채봉의 가문이 사족의 집안이며, 아버지가 투옥되었을 때, 채봉이 자진하여 妓籍에 몸을 팔아 그 돈으로 아버지를 옥에서 구출하려 한다는 점에서 「無情」에서 영채의 행위와 너무나 흡사하다.

「彩鳳感別曲」에서 ‘채봉의 아버지 김진사는 벼슬에 눈이 어두워, 허판서에게 소실로 딸을 바치고 벼슬자리를 얻으려 한다. 채봉이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도망쳐 평양으로 돌아온다. 김진사는 허판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투옥된다. 어머니가 허판서의 소실이 될 것을 간곡히 권한다. 채봉은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자기의 몸을 기적에 팔아 아버지를 구할

돈을 마련하여 서울 허판서에게 보낸다'는 내용이 「彩鳳感別曲」의 전반부인데 「無情」에서도 아버지가 옥에 갇힌 상황이나, 봉양을 위해 돈이 필요한 점이나, 자기의 몸을 妓籍에 팔아 돈을 마련하는 내용이 너무나 유사하다. 물론 그 동기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근본 構造에 있어서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彩鳳感別曲」은 開化期인 1910년대까지도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일반에게 유포되고 있었던 소설이다.¹²⁾ 「無情」이 연재될 무렵에도 일반 독자에게 읽히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내용이나 인물의 설정, 주제면에서도 이조 소설로는 드물게 보는 현대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¹³⁾ 특히 채봉의 父權에 대한 항거와 自由意思에 의한 배우자의 선택과 자신이 결심한 대로 애정의 결실을 맺어 행복하게 산다는 소설 結構는 春園이 논설과 소설을 통해 강력히 주장했던 사상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과거 전통적인 결혼 제도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해답을 명료하게 제시한 소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彩鳳感別曲」은 春園의 의기에 투합되는 작품이라 하겠다.

「無情」에서 영채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적에 몸을 파는데, 판 후의 스토리의 전개는 그 기본 골격에 있어 「彩鳳感別曲」의 기본 구조와 흡사하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 너무나 공통점이 많이 발견된다.

또한 에펠레이션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¹⁴⁾ <英彩>란 이름의 命名이다. 영채가 기생이 된 후, 그녀가 가장 가까이 했던,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기생이 월화였다. 이 월화가 항상 사모하고 자신의 理想으로 삼았던 기생이 송이(松伊)였다. 「無情」에서는 松伊가 절개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 눈에 낮게 보이는 손님을 대할 때는,
술이 술이 하니 무슨 술이로만 여겼던가,
친인 절벽에 낙락장송 내 기로다. 길 아래초동의 낮이야 걸어 볼 줄 있으랴.
하는 술이가 지은 시조를 불렀다. 그래서 그의 친구는 월화를 술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실로 월화의 이상은 술이(松伊)였었다. 영채가 월화를 사랑하게 된 것도 이때문이다.
영채의 눈에 월화라는 기생은 죽히 열년전에 들어갈 만하다 하였다. 그리고 술이라는 기생이 어떠한 기생인지도 모르면서 월화가 술이를 이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모양으로 술이를 이상으로 하였다. 영채가 일찍 월화에게 안기면, “형님! 형님과 저와 술이와 세 사람이 친구가 됩시다.”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반드시 월화 형님과 같이 술이가 되리라 하였다.¹⁵⁾

영채가 이상으로 여겼던 이상형이 松伊였음을 알 수 있다. 松伊란 妓名은 「彩鳳感別曲」에서 彩鳳의 妓名이다. 「無情」에서 春園은 영채를 松伊처럼 끝까지 절개 군은 기생으로 만들려

12) 本稿에서는 1914년 5월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原本彩鳳感別曲」을 text로 하였다.

13) 金起東, <彩鳳感別曲>의 比較文學의 考察, 東大論文集 1, 1964.

14) 韓承玉, 李光洙研究, 東亞論叢, 제17집, 1980, p. 43.

15) 「無情」, 全集 1권, p. 62.

했는지도 모른다. <英彩>의 「彩」字도 결국 <彩鳳>의 「彩」字에서 借字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한가지 의문되는 것은 왜 「無情」에서 「춘향전」이나 「이태백」, 「양창국」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彩鳳感別曲」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것은 당연한 트릭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만일 독자가 「彩鳳感別曲」과 같은 아류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면, 독자는 그 순간 소설에 대한 흥미를 잃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春園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을 것이다. 아니면 뜻 그대로 받아 들여 무의식 중에 과거 어린 시절에 읽었던 고대 소설이 제목도 잊은채 막연히 떠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實에 있어 「無情」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彩鳳感別曲」의 것을 교묘히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두 작품을 세부적으로 대비 분석해 보기로 한다.

《作品的 對比》

「無情」을 영채와 형식을 중심으로 構造 分析하면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패턴으로 단순화된다. 「無情」은 이로 보아 애정 소설의 일반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無情」을 계몽소설인 점에서 보다 애정소설인 점에서 파악하려는 태도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¹⁶⁾ 이미 김우중은 이 점을 간파하여 애정소설의 대가로 춘원을 평가하기까지 한다.

「無情」이 소설의 형상화 면에서 결점을 지닌다면, 그 기교의 미숙과 兩面性 때문일 것이다.¹⁷⁾ 春園은 「無情」에서 계몽적 주제를 너무 노골적으로 표출하여 생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약점인 것이다. 이것은 주제의 內面化란 점에서 결점으로 지적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계몽소설로서는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表面化되었다는 점에서 저급의 계몽소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곧 開化意志를 표현한다는 의미의 계몽소설로는 당대에서 가치를 지닐지 모르나, 그 시대를 벗어난 지금은 계몽성을 잃고 있다는 뜻과 상통한다. 앞으로 「無情」이 계속 읽힐 수 있다면, 그것은 애정 소설로의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계몽성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男女의 愛情問題는 인류 역사가 지속하는 한 근본에 있어서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애정소설의 바탕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다. 李朝小說에서도 애정소설의 전통은 매우 뿌리 깊다. 또한 대부분 妓女형 애정소설이란 점에서 공통적인데, 「無情」과 연관시켜 볼 때 흥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폐쇄된 사회에서 정상적인 회로를 통한 애정의 발로나, 진정한 남녀의 사랑이 차단되었을

16)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서울: 成文閣, 1972, p. 178.

17) 鄭漢淑, 現代韓國作家論, 高大出版部, 1977, p. 14.

때 妓女와의 애정이 유일한 통로였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애정관계는 그 속성으로 보아 소설의 주요한 테마가 될 수 밖엔 없었을 것이다.¹⁸⁾ 기독교적 전통사회에서는 청교도적 도덕관 때문에 결혼한 사이 이외의 남녀 관계가 죄악시 되었으나,¹⁹⁾ 우리의 경우 李朝時代에는 儒家的 전통으로 인해 기생과의 애정 행각은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에 죄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방면으로의 자유 분방한 애정의 표출이 妓女型 愛情小說이 발달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애정소설이라 하여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지니는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애정소설에 妓女가 등장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無情」에서 영채가 기적에 몸을 팔 수 있었던 것도 妓女型 애정소설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小說 밖의 現實도 이와 흡사했기에 자연스럽게 독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작가는 이를 염두에 두었기에 영채를 妓生으로 전락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無情」은 결국 妓女型 愛情小說과 연관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공통점을 지닌 두 作品을 <만남>과 <이별>이란 애정소설의 근본 구조를 통해 對比分析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構成의 對比

작품 구조	彩 鳳 感 別 曲	無 情
만 남	1. 채봉이 동산에서 꽃구경을 하다가 필성과 손수건을 인연으로 만나게 됨. 채봉과 필성이 채봉 어머니의 허락하에 婚約함.	1. 영채가 소녀 때, 이형식이 고아가 되어 박진사댁에 의탁됨. 박진사 이 형식을 영채의 배필로 정함.
이 별 (시 련)	2. 관직운동 걸택서를 위해 김진사 上京함. 벼슬 욕심에 허판서에게 딸을 첩으로 줄 것을 약속하고, 평양에 내려와 진답 팔아 채봉을 비롯 가족 데리고 상경함. 도중에서 화적 만남. 채봉 탈출하여 평양으로 되돌아옴. 3. 이 소식 듣고 허판서 채봉의 아버지를 하옥시킴. 4. 어머니 채봉을 찾아와 아버지 투옥된 사실 알리고, 허판서의 소실이 되어 줄	2. 박진사 전답 팔아 학교 세움. 재정난으로 문단을 위기에 처함. 박진사의 물품을 받던 학생 홍모가 사정이 딱함을 보다 못하여, 돈을 구하기 위해, 이웃 동네에 가 살인 강도 하게 됨. 3. 박진사 이 사건에 연루되어 두 아들과 함께 투옥됨. 4. 영채 집 파산되어 형식과 헤어짐. 영채 외가로 갔다가 구박이 심하여 탈출

18)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서울: 敎學社, 1981, p. 150.

19) I. Watt, 'Love and the Novel', The Rise of the Nove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p. 135~173.

	<p>것을 간청함. 채봉 첩 되기를 거절함. 妓籍에 몸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서울로 보냄. 허판서 채봉 데려 올 것을 고집하며, 채봉의 아버지를 계속 하옥시킴.</p> <p>5. 채봉은 妓生 松伊가 됨. 名妓로 소문이 나며, 필성과의 재회를 위해 정절을 굳게 지킴.</p>	<p>하여 아버지 만날 생각으로 평양으로 오나, 도중에 못된 사람 만나 위기를 당하게 되나, 개의 報恩으로 무사히 평양에 도착하여 아버지 면회함. 아버지 비참한 모습 보고, 妓籍에 몸을 팔아 돈을 마련 함. 박진사 그 소식을 접하자 자결함.</p> <p>5. 영채 기생 계월향이 됨. 형식을 재회할 희망으로 정절을 굳게 지킴.</p>
<p>만 남</p>	<p>6. 필성이 채봉이 내건 詩題를 보고 자신과 화답한 詩임을 알고 찾아가 상봉함. 필성, 채봉이 기생이 되었음을 보고 내적인 갈등함.</p>	<p>6. 형식이 서울에 있다는 소식 듣고 영채 형식의 하숙으로 찾아가 재회함. 형식, 영채가 아무리 보아도 기생인 것 같아 갈등함.</p>
<p>이 별</p>	<p>7. 채봉 지닌 돈 다 떨어져 더 이상 필성과 만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평양 감사 이보국에게 구원됨.</p>	<p>7. 영채 형식을 만나고 온 후, 청량사에서 배학감, 김현수에게 정조 훼손됨. 이 사건으로 영채 자살하러 평양 가던 중 기차에서 김병욱을 만나 구원됨.</p>
<p>만 남</p>	<p>8. 채봉 평양 감영에서 이보국의 비서로 두문불출 보호됨. 필성이 이 소식 듣고 이방이 되어 재회의 기회만 엿봄. 채봉 어느 날 밤 필성을 그리워 하는 感別曲 짓고 느껴 울다가, 이보국에게 발견되어 사연이 알려 짐. 이보국 두 사람을 결혼시켜 잘 살게 함.</p>	<p>8. 형식 영채를 평양으로 찾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 와 선형과 약혼함. 영채 병욱에게 설득되어 그녀의 집에 있다가 성악을 공부하러 유학차 병욱과 함께 기차에 오름. 형식도 선형과 미국 유학차 기차에 오름. 영채와 형식 재상봉함. 영채, 형식, 선형 서로 갈등 함. 삼랑진 역에서 홍수를 만나, 모두 구제사업을 벌임. 모두 유학하여 나라를 구할 결의함.</p>

이상에서 대비적 構成 分析을 종합해 보면, 세부적인 삽화를 제외하면, 커다란 골격은 「彩鳳感別曲」이나 「無情」이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두 소설 모두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구조로 짜여져 있다.

다음에는 위의 分析을 토대로 만남과 이별이 지니는 相異點과 共通點을 검토하여 그 의미를 추출하여 두 小說이 지니는 相關性을 가려내 보기로 한다.

2. 內容의 對比

1) 만 남

〈공통점〉: 여자의 가문이 두 소설 다 士族의 집안(進士)이란 점이다. 「彩鳳感別曲」은¹⁾ 김진사 집이고 「無情」은 박진사 집으로 그 고을에서는 덕망이 높고 지체가 있는 가문이다.

또한 두 소설 다 남주인공이 인물은 비범하나, 가세가 기운 영락한 집안의 자손이란 점이 다. 「彩鳳感別曲」에서 필성은 전 선천부사의 자제이나 현재는 매우 궁색하게 되었다. 「無情」에서 이형식은 고아이나, 형식의 아버지가 박진사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기술로 보아 형식의 집안도 士族의 가문이었으나 현재는 영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소설이 모두 사회상을 여실히 그려 주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사회 배경은 다소 차이가 나나, 李朝末, 혹은 舊韓末 時代란 점에서는 공통점이 드러나며, 좀 더 세밀히 말한다면, 「彩鳳感別曲」이 조금 앞섬을 알 수 있다. 「彩鳳感別曲」은 탐관오리의 작폐를 허판서를 통해 보여주며, 말까지 팔아서라도 벼슬을 사려는 그 당시의 작태나 부패한 삶의 형태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無情」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척결하고 개화 의지로 救國, 立國을 하려는 또 다른 儒學者의 전형을 박진사를 통해 보여 준다.

두 作品 모두 당대 사회의 절실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소설을 통해 표출하고 있음이 공통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상이점〉: 만나는 장면이나 그 동기가 전연 異質的이다. 「彩鳳感別曲」에서는 채봉이가 떨 어뜨린 손수건에 필성이 詩를 써서 들여 보내, 그 회답을 詩로 받음으로 인연이 맺어지는 古代小說 특유의 수법을 씀에 비해,²⁰⁾ 형식과 영채는 낭만성이 배제된 비정한 현실의 한 결과로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 지게 된다. 여자 쪽이 형식을 고아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시혜자의 입장이 되기에 대등한 관계에서 로맨틱한 상황이 설정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인공들의 나이에도 두작품이 차이가 난다. 「彩鳳感別曲」에서는 두 주인공이 이팔청춘의 나이라면, 「無情」에서는 이제 열살도 채 못되는 어린 나이이다. 따라서 「彩鳳感別曲」에서는 채봉과 필성의 自由意思에 의한 選擇의 만남이라면, 「無情」에서는 박진사의 父權的 권위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과거 인습적 맺어짐이다. 「彩鳳感別曲」이 自由戀愛를 실천한 것이 되며, 「無情」은 인습을 답습한 것이 된다. 곧 「彩鳳感別曲」이 成熟한 만남이라면 「無情」은 여러 의미에서 未熟한 만남이다.

2) 離 別

〈공통점〉: 두 작품 모두 여주인공 집의 家産이 탕진된다는 점이다. 여주인공이 妓生으로

20) 金起東, 前揭論文 참조.

전략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에 기인한다. 당대에 이루어지고 있던 신분 계층의 이동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곧 兩班 家門의 몰락과 그로 인한 신분 계층의 이동을 의미한다. 비록 동기는 「彩鳳感別曲」에서는 벼슬을 위해 가산을 팔고 「無情」에서는 開化 教育을 위해 가산을 소모하나, 결과적으로는 모두 몰락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또 하나는 父權의 失墜이다. 「彩鳳感別曲」에서는 채봉이 아버지의 말을 不服從함으로서 父權이 부정되며, 「無情」에서는 그와 반대로 父權에 절대적으로 종속하려는 것이 결과적으로 父權을 失墜시킨다. 영채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판 것을 비관하여 박진사가 자결한 것은 아버지가 옥에 갇힘으로써 父權이 위기에 처한 것을 발단으로 하여 이 지점에서 완전히 종말됨을 뜻한다. 이것은 舊韓末 植民地 잠식과 연결시켜 볼 때, 正體性(identity)의 위기와 동일 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이라 생각된다.

또 하나, 이로 부터 가너린 여자로서 시련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彩鳳感別曲」이나 「無情」 모두 정절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이점〉: 「彩鳳感別曲」에서는 어머니가 첩이 될 것을 강권하나 채봉이 이를 거절하는데 이것은 父權에 대한 도전이며, 개인의 자유 의사에 의한 선택이며, 애정을 전제로 한 결혼에 대한 신봉이며, 가족 제도의 모순에 대한 항거이다. 이러한 점에서 「彩鳳感別曲」은 오히려 현대적인 자각이 싹튼 소설이라 볼 수 있다.

「無情」은 이와 반대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효행을 본뜬 결과가 된다. 이 점에서 「無情」이 「彩鳳感別曲」보다 오히려 고대 소설적인 요소를 강하게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無情」이 古代小說과 동격이라거나, 그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春園은 더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 일부러 과거 소설적 수법을 借用한 것이라 보여진다. 여기서 문제는 「彩鳳感別曲」과 「無情」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彩鳳感別曲」과 「無情」에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妓籍에 몸을 파는데, 「彩鳳感別曲」에서는 아버지가 중국에 가서는 탐관오리 대숙정으로 구출되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데, 「無情」에서는 오히려 영채의 古代小說의 孝行으로 말미암아 박진사가 자결하고 그 오빠 둘도 따라 죽음으로 해서 家門은 일시에 황폐화되고, 古代小說의인 행복한 결말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彩鳳感別曲」이 고대 소설의 한 전형을 보여 준다면, 「無情」은 리얼리즘적 現代小說의 시도를 보여 주고 있고 비정하게 처리함으로 하여 새로운 소설적 전개를 개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無情」에서는 고대 소설적인 것을 借用하는 듯하면서도 독자가 이에 따라오려 하자 그를 과감하게 배반하고, 독자의 기대를 깨뜨려 버림으로 하여 충격을 주는 수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春園의 作家 力量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점이라 하겠다.

3) 再 會

〈공통점〉: 「彩鳳感別曲」이나 「無情」이나 여주인공이 妓生으로 전락하였으면서도 그 생의 목표를 배필로 정해진 남자 주인공을 만나려는데 오로지 한다는 점과, 그를 위해 자기의 의무로 정절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作品 다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둘 다 여자는 기생 신분으로 남자를 만나게 됨으로 하여 남주인공들이 여주인공의 기생이란 신분 때문에 배필로서 맞아 들일 것을 갈등한다는 점이다. 또한 필성이나 형식이나 모두 妓生 贖良할 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상이점〉: 만나는 방법 부터 「彩鳳感別曲」에서는 고대 소설 특유의 상투적 수법이 사용되나, 「無情」에서는 영체가 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형식을 찾아가는 새로운 패턴이 시도된다. 「彩鳳感別曲」에서는 남자가 움직이나, 「無情」에서는 여자가 움직이고 있다. 「彩鳳感別曲」의 시대는 여자가 아직 활동적이 되지 못하였던 때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無情」에서는 많이 개방된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彩鳳感別曲」에서는 결국 채봉과 필성이 만나 만단정회를 푼다는 古代小說 특유의 궤도를 그리며 사건이 진전되나, 「無情」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비극으로 끝난다. 영체는 결국 형식으로 부터 외면 당하고, 배학감과 김현수에게 정조를 유린 당한다. 독자들이 지니고 있을 고대 소설적 상식을 깨뜨려, 이에 따르는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

4) 再 離 別

〈공통점〉: 재회가 이루어 지고 난 후, 두 작품 다 시련이 오게 된다는 점이다. 「彩鳳感別曲」에서는 채봉이 지니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게 되어 기생의 신분으로 다른 남자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또한 채봉과 필성의 이별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한다.

「無情」에서도 이러한 이별이 암시되는 것은 동일하다. 영체가 형식을 만나고 나올때, 형식은 영체를 구원할 생각이 없음을 암시하고, 영체도 더 이상의 희망을 기대하지 못한 채 물러나와 자신이 妓生이 되었음을 비관하며 그날 청량사로 배학감과 김현수를 따라 가게 되는데, 이는 벌써 사태가 변화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영체가 형식의 굳은 언약이나 확신 있는 태도를 접할 수 있었으면, 영체의 그간의 행동이나 의지로 보아 충분히 위기를 모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정조가 훼손되는 것으로 상황이 설정되고 있다. 이로 보아 「彩鳳感別曲」이나 「無情」이 이별을 암시하고, 그에 합당한 분위기를 설정하여 두 주인공이 헤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다음 단계인 구원의 과정도 동일하다.

두 작품 다 여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된다는 점이다.

「彩鳳感別曲」에서는 채봉이 돈이 다 떨어져 일반 기생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평양감사

이보국의 힘에 의해 속량 받아 감영에 비서로 들어가 외부와 절연된 상태에서 보호 받게 된다 「無情」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기차 안에서 은인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된다. 영채가 평양으로 자살하러 가던 기차 안에서 병옥을 만나, 병옥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 하게 되고, 영채는 병옥으로부터 새로운 가치관이 있음을 알게 되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살을 단념하고 병옥의 집으로 가게 된다. 방법에서는 다를지라도 은인을 만나 구원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상이점> : 앞에서 보았듯이 구원되어 보호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彩鳳感別曲」에서는 의식의 변화가 없으나 「無情」에서는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彩鳳感別曲」에서 만나 채봉은 오로지 일념 필성을 다시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지고의 목표이다. 「無情」에서는 그러나 이미 정절을 잃고 난 후이며, 또한 형식도 선형과 약혼을 한 후이다. 영채와 형식이 맺어지리라는 기대는 이 지점에서 무산된다. 「無情」에서는 이를 전제로 영채의 가치관이 병옥에 의해 유도된다.

또한 小説 技法上에서도 차이가 난다. 「彩鳳感別曲」에서는 平面的인 人物로 일관시키는 반면, 「無情」에서는 性格의 변화를 꾀하는 動的인 人物을 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小説 技法上의 한 진전을 보게 된다.

5) 다시 만남

<공통점> : 두 작품 모두 대단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인공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彩鳳感別曲」에서는 평양 감사 이보국이 채봉의 秋風感別曲을 듣고 그 사연을 물은 후에 애절하고 절실한 곡절이 있음을 알고, 필성과의 재회를 허락하고 백년가약을 맺어 준다.

「無情」에서는 영채와 병옥이 함께 동경에 유학하게 되고 선형과 형식도 미국으로 유학하는 도정에 오른다. 이들은 모두 기차 안에서 재회하게 된다.

「無情」과 「彩鳳感別曲」은 상황 설정으로 보아 이 지점부터 동일한 궤도를 그릴 수 없는 것이었다. 「彩鳳感別曲」이 행복한 결말이라면 고대 소설의 상투성을 전형으로 따라야 했기에 그것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現代小説이라면 「無情」은 그와는 다른 수법을 보였어야만 했을 것이다. 「無情」에서 영채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면, 끝까지 비극의 주인공답게 냉정한 붓끝으로 조상하였어야만 마땅했을 것이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게 한다는 것은 철저한 古代小説的 結構法을 답습한 결과가 된 것이다.

<상이점> : 비록 재회한다는 점과 행복한 결말이란 結構에서는 공통적이나, 내용상으로는 전연 판이하다.

「彩鳳感別曲」에서는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어 비극이 도사리지 않는 명실상부한 행복한 결말이 되나, 「無情」은 남녀애정의 문제로 보아서는 영채와 형식이 맺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비

21) 金東仁, 前掲書 p.497

극성이 내재한다. 영채의 입장에서는 계속 ‘무정함’이 확인될 뿐이다.

구원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彩鳳感別曲」이 절대적인 은인의 막강한 힘에 의해 구원되나, 「無情」에서는 두 인물이 수평선상에 위치하며, 설득에 의해 가치관이 변화되어 죽음을 포기 한다는 점이다. 죽음의 포기라는 면에서는 구원이거나, 內的이고도 진정한 구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하나가 감사에 의해 구원되는 神的인 힘의 확인이라면 또 하나는 理性的이고 意志的인 自發性에 기인한다. 이 점에서 「彩鳳感別曲」과 「無情」이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Ⅲ. 結 論

지금까지 필자는 「無情」과 「彩鳳感別曲」을 대비적으로 고찰하였다. 「無情」의 기본 구조나 전개 양상이 「彩鳳感別曲」과 너무 흡사한 점에 새삼 주의를 요하게 되었다. 이로 보아 「無情」은 古代小說을 막연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 「彩鳳感別曲」을 현대판으로 각색한 소설이나 다름없다는 생각까지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春園의 作家的 力量을 높이 살 수 밖에 없는 것은 전연 외적으로는 「彩鳳感別曲」의 구투를 발견할 수 없고, 신선한 당대의 사회현상이나 시대정신을 표현함은 물론 舊小說의인 잔재를 일소하고 새로운 소설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건 진행에서 철저히 古代小說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골격은 古代小說에서 취하였으나 액션의 전개는 古代小說과는 정반대로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묘사의 박진감도 함께 지적되어야 할 장점이다.

이로 보아 春園은 古代小說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自由戀愛 실천 소설인 「彩鳳感別曲」에 감화를 받아 그를 토대로 비록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새로운 愛情小說을 창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無情」은 위의 검토로 보아 계몽적인 의도에서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본 구조가 「彩鳳感別曲」에 근거한, 系譜上으로는 愛情小說이며, 앞으로도 계몽소설보다는 애정소설로서 그 가치가 살아 남아 있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제기될 수 밖에 없으리라 사료된다.

「無情」은 신소설에 맥락이 이어짐도 사실이나 그 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古代小說인 「彩鳳感別曲」에 이어지는 것이며, 이로 보아 「無情」은 韓國 愛情小說(혹은 艷情小說)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李光洙의 全體 小說도 이러한 系譜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보다 사려 깊은 고구가 필요하리라 본다.